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원양어선원 유해, 유족의 품에 안긴다

- 8.11.(화) 세네갈 다카르 묘역 원양어선원 해외 묘지 국내 이장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11일(화)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1위(位)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해 유해 봉환 추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1980년대 경제발전의 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지 37년 만에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2002년부터 사모아,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네갈 등 7개 나라에 있는 272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해 왔다.

또한, 2014년부터 유족이 유해의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위(位)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40위(位)의 유해를 이장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이장을 위해 3년 동안 애써 주신 주세네갈대사관, 세네갈 명예 해양수산관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유족은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11)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거영 (051-773-5360)
		담당자	사무관	이진석 (051-773-5363)

참고 1

해외 선원 묘지 관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안장된 원양 선원묘지 관리 등을 통한 원양 종사자의 사기·공지 제고와 국내이장 지원을 통한 유가족 숙원사항 해소

□ 사업내용

- (지원내용) 해외 선원묘지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과 홍보 등
- (지원근거)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 2
- (지원형태)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06~'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금액	369	100	100	100	100	100	100	80	74	74	74	74	74

* '02~'04 해외묘지 일제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개보수비 지원('05년~), 국내이장('14년~)

- (수행주체) 한국원양산업협회(현지 명예해양수산관, 한인회 등)

□ 사업 추진 현황

- (묘역 관리) 묘지·묘비에 대한 전면 개·보수('02~'04년), 울타리 설치와 보수, 조경, 주변 청소 등 관리
- (국내 이장)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총 40기 이장 지원('14~'26년)
- (홍보)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한 국내이장 국비 지원 사항 등
- (해외묘지 현황) 7개국 271기 안장

단위 : 기(墓)

합 계	스페인		사모아	수리남	피지	타히티	앙골라	세네갈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271	83	16	82	31	16	13	16	14*

* 금번 국내 이장된 1기 제외



세네갈 묘지



'25년 추모식 현장